

< 양식 2 : 작성서식 >

제 목	B1은 사랑을 싣고.
-----	-------------

대전에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여전히 직장이 대전에 있는 이유로 매일 세종과 대전을 오고 간다. 아이들은 세종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였지만, 둘째 아이가 배우고 있던 악기를 계속 배우기를 원했고, 세종에서 아이와 맞는 레슨 선생님을 쉽게 구하지 못한 우리는, 대전에서 레슨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가 세종에서 대전으로 레슨을 받으러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 부부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있던 아이는 호기롭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버스 타고 대전으로 갈게요!”

아빠 엄마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버스 타는 방법을 일찍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휴일에 버스타고 할머니댁에도 몇 번 다녀와 보곤 했었다. 또, 4살 많은 누나와 함께 한번씩 엄마가 일하는 직장까지 버스타고 와보라고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버스타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도시를 넘어서 이동하는 버스는 혼자 타 본적이 없었던 터라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 사이 중학생이 된 누나는 동생의 레슨 시간에 맞춰 함께 대전으로 이동해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10살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나온다는 것이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머리를 모아보아도 아이가 버스타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다행인 것은 집 앞에 B1 정류장이 바로 있다는 것과, 대전 농수산물시장에서 버스를 내리면 거기서 아이를 만나 함께 학원으로 이동하기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집 앞에서 대전농수산물시장까지의 정류장은 단 3개. 3번째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었다.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모의운행을 해보았다. 아이는 이미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B1버스와의 동행은, 겨우 10살인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되었고 아이가 자립심을 가지고 자라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교 후 집에서 악기를 챙기고 버스카드를 챙겨서 버스를 타야하는데, 어떤 날은 버스카드에 잔액이 없는 것을 버스에 타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버스비를 내주셨다고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예쁘게 하고 버스에 탔다고 한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이는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나오는 것에 익숙해졌고 능숙하게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느때처럼 아이를 만나러 버스정류장 인근에 가 있었다. 보통은 자동차에서 아이를 기다리면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와서 만나는데, 그날은 웬지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고 싶었다. 아이가 버스에 타고 출발한다고 전화를 했다. 도착시간이 되어갈 즈음, 저 멀리 B1버스가 보인다. 부드럽게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는 만원이었다. 내리는 승객들도 많고 타려는 승객들도 많았다. 하나 둘씩 버스에서 승객들이 다 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배차간격이나 출발시간으로 유추해봤을 때 분명 이 버스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야 하는 버스였다! 급히 전화를 하는데 기사님이 출발하시려고 움직이

신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마음이 급해졌다.

“잠시만요 기사님! 아이가 이 버스를 탔다고 했는데 내리지 않았어요!” 라고 바쁜 버스를 세워두며 전화를 계속 해보았지만 받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기사님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안되겠다 싶어 버스에 올라가 자리를 다 살펴보며 아이를 찾아보았다. 맨 뒷자리에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아이가 한명 눈에 들어왔다. 휴.. 다행이다. 내 아들이었다. 아이를 깨워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인사를 하고, 버스기사님께도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아이에게 별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시며 한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셨던 고마우신 기사님과 승객분들. 아이가 내려서 이렇게 말한다. “엄마 죄송해요. 버스가 너무 따뜻하고 조용하게 가서 잠들었어요.”

곱씹을수록 기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가 잠에 깨어보니 내리던 버스정류장을 지나쳤다고 생각해보니, 10살 아이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고, 얼마나 길을 헤매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다. 그렇지만 바쁜 버스운행시간에 배차시간도 잘 맞춰야 하는데도 한번도 나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편잔도 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너그러우신 기사님.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해주셨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꿀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가 몸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악기레슨을 위해 B1을 타고 나왔지만, B1 버스는 그보다 더 큰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나와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주었다. 버스비가 없을 때 도와 주셨던 승객분과, 안전하게 친절하게 운전해주시는 기사님.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사랑을 싣고 달리는 버스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와 우리 아이도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사랑을 한가득 싣고 달리는 B1버스!! 안녕!